

미국에서 본 수의학 (3)

김 현 영

재미한인수의사회장
Pennsylvania주정부 수의연구소
Virology Dep. 과장
Enola Animal Clinic 개인병원장

최근 미국 수의과대학에서 강조되는 분야가 많이 바뀌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였던 University of Pennsylvania 수의과대학의 경우를 보면 기초학, 즉 병리학이나 미생물학계통의 학문보다는 Medicine과 Surgery 계통인 임상학 계통이 더 강조되며 연구자금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Kidney Transplantation 같은 연구도 Surgery 전공교수가 주임연구자로서 Pathology와 Immunology 전공교수들과 함께 공동으로 한 Team이 되어 막대한 연구자금을 갖고 연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수의과대학과 수의계통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을 채용, 승진함에 있어서 특히 임상학계통에는 수의 전문의 (Veterinary Speciality Board) 자격을 거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수의 전문의 제도는 내과, 외과, 방사선, 피부과, 마취과, 실험동물, 독성학, 산과학, 임상, 안과, 수의예방, 병리, 미생물학 등 13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수의 전문의 제도는 Internship과 Residentsip 등 최소 4~5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시험칠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훈련중 동시에 석사, 박사과정을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교육제도에는 임상학에 대한 수의학 석사, 또는 수의학 박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초학 또는 관련된 학문의 일반 학위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전문의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며 더욱이 외국 수의과대학 출신에게는 시

험자격을 얻기 위한 훈련부터 받을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AVMA Membership (1983) 가운데 27,244명이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동물만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가 전체의 4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동물과 대동물을 겸하는 수의사 (Mixed Practitioner)가 전체의 41%, 그리고 대동물만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을 전문으로 하는 Equine Practitioner가 전체의 4%라는 높은 비율의 전문수의사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옛날처럼 교통용의 말이 아니라 고급사회의 애완용 또는 경마에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옛날 50년전에 Hoss Doctor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동물 전문수의사가 전체의 47%라는 엄청난 큰 숫자는 여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소동물병원은 세계 1차대전 전까지만 하여도 수의계에서 아주 작은 영역으로서 큰 도시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차대전후 자동차로 인한 교통혁명이 온 후로 말에만 의존하던 교통이 달라져 당시에 수의사들의 주업인 Horse Doctor의 사회적 존재성을 잃게 되었으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당시 혹독한 경제공황으로 수의사의 직업이 엉망이 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수의계는 살기 위하여 찾

은 방법이 소동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AAHA 50년사가 1983년도에 출판되었는데 그 내용중 1929년에 소동물 병원을 처음으로 개업하였던 Dr. Haigler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당시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많은 식구들의 식탁에서 먹는 음식도 부족하던 때에 그들은 Family pet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쓰는 것을 보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그 사회가 소동물수의사의 service를 열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의사들은 열심히 이 소동물계통에 힘쓰게 되었으며 새로운 시설과 진단기구 등을 준비하였으며 더구나 자동차도로가 점점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차를 몰고 Family pet를 병원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따라서 수의과대학의 질도 좋아지면서 소동물 병원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 생겼던 AAHA의 힘이 또한 크게 공헌한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한가지 한국과 크게 달랐던 것은 그들이 당시 만들었던 소동물 병원은 그 규모가 응접실, 진찰실, 수술실, 병리실험실 등으로 세분화되어 한국과 같이 하나의 방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조밀성이 없었으며 간판역시 6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Dr. Haigler's Veterinary Hospital이라고 당당히 전문성을 나타내는 pride가 있었다는 점이다. 1929년 Dr. Morris는 New Jersey에 Raritan Hospital for Animal을 세웠는데 그는 특히 Clinical Pathology에 관심이 있어 Biochemist를 채용하여 그때부터 연구하여 지금의 Kidney의 중요 test인 BUN, CREATINE등을 개발하였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개업수의사들의 실력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Pennsylvania수의과대학 학장으로 있는 Dr. Marshak은 개업하고 있던중 본인의 의사보다는 대학당국에서 찾아와 강사도 아닌 정교수도 초빙하여 현재는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Bovine Leukemia)이며 행정가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수의과 병원은 소동물 또

는 대동물 전문병원이 다같이 Solo Practice보다는 Group Practice를 하여 보통 수의사가 2~5인 이상으로서 종합병원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1970년대 이후에 와서는 수의계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Veterinary Technician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년제 초급대학이 각 주에 하나 이상씩 생겼으며 이러한 학교도 물론 AVMA에서 인준을 받게 되며 많은 주에서는 면허시험을 치루어 Veterinary Technician면허를 주고 있다. 또한 Emergency Clinic(주로 밤에 교통사고 등 특수한 Case를 받는 병원), Large Central Hospital(종합병원으로서 가까운 몇개지역에 Satellite Clinic을 몇 개 세워 종합병원 역할을 함) Out Patient Clinic등 새로운 용어와 system이 생겼으며 학문적인 발전도 크게 향상되었다.

맺는 말

이제 외국에서 볼때 한국 수의계는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흐름에서 필연적인 변화라 보겠다. 우유가 현대 문명의 대명사처럼 되는 이 시기에 한국의 사회구조가 우유와 고기를 먹는 현대의 식생활 패턴으로 바뀌면서 개업수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50년전 말이 교통의 주종일 때에 불리던 Hoss Doctor(당시 이 Hoss Doctor에는 낮게 취급되는 느낌이 들어있음)를 현재 미국수의사들은 “오늘날의 현대 수의사들은 이미 옛날의 Hoss Doctor가 아니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젖소가 계속 증가하면서 젖소들에 대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개업수의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할 분야가 국가 차원에서 Veterinary Diagnostic Laboratory임을 재삼 강조하

고 싶다.

여기에 우선 미국의 State Veterinary Diagnostic Laboratory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각 주정부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주정부 직속 또는 수의과대학에 병설한 이러한 연구소들이 있다. 주립수의과대학이 있는 주정부 즉 New York, Texas, Georgia, Louisiana 등 몇 개주는 각 수의과대학내에 State Veterinary Diagnostic Laboratory가 속해 있으며 Pennsylvania 등 몇개 주는 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Pennsylvania 주정부에는 필자가 있는 중앙연구소 이외에 각 지역으로 5개의 연구소가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소에는 보통 Pathology, Bacteriology, Virology, Toxicology, Serology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Department에 과장급은 물론 수의사로 되어 있으며 이 연구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사비가 없거나 최소로 하고 있다. 필자가 있는 이 연구소에는 평균 하루 대동물 10마리 이상, poultry까지 합치면 몇 십마리를 부검하여 진단하고 있으며 필자의 Virology Dept.에서는 일년에 30,000건 이상의 specimen들을 검사하여 개업수의사들에게 진단, 치료, 예방 등에 대하여 service한 모든 것을 목장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있지만 우리 Laboratory는 이러한 모든 service에 대하여 무료 또는 약간의 실비만 받고 개업수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실이다.

더우기 목장주들은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개업수의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개업수의사들을 신용하고 그리하여 수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개업수의사(특히 대동물)들이 이러한 laboratory의 도움없이 자기 스스로만 진단, 치료, 예방한다는 것은 옛날 Hoss Doctor 취급을 자청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State Laboratory, 개업수의사, 목

장주 등 세분야가 3위1체가 되어 국가단위로 질병을 예방관리하며 국가산업에 직접 참여하여 공헌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지난 10여년간 미국 각 정부단위로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이 Veterinary Laboratory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계통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 수의계에 바라고 싶은 것은 수의과대학의 교육향상이다. 미국에서 1800년대 후기에 우후죽순격으로 시설과 교수진 없이 몇 개의 욕망을 위해서 생겼다가 다 없어지고 새로이 주립수의과대학이 정리되었듯이 한국의 수의교육에도 큰 혁신이 있어 정리가 되어 역사의 흐름을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선 수의과대학이 있는 서울대학교만이라도 교육년한을 최소 6년제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러한 길은 비록 한국의 수의계가 한국의 사회를 이끌어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수준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6년제에서 4년제로 퇴보할 때에 우리 재미한인수의사회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재미한인수의사회(당시 회장: 김상남)에서는 한국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정부의 회신은 문교부의 입장을 신중히 알려왔는데 그 회신에서 풍기는 내용은 한국수의교육은 문교당국에 의하여 수의사가 아닌 몇사람의 비수의사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같았다. 평범한 진리 "울지않는 아기에게 젖을 주겠는가"라는 한국의 속담이 수의과대학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 수의계의 발전, 그중에서도 6년제 수의과대학 향상을 재미수의사들은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미국에서의 수의계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장차 모국수의사들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